

조선 후기 남성 지식인의 여성 지식인에 대한 평가

- 임윤지당의 경우를 중심으로

김경미*

차례

1. 서론
2. 임윤지당에 대한 남성 지식인의 평가
 - 2.1. 여성의 학문에 대한 인정과 임윤지당
 - 2.2. 여성 지성사의 계보와 임윤지당
3. 성리학의 전통과 여성 지식인의 존재
4.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임윤지당의 예를 중심으로 여성 지식인에 대한 남성 지식인의 평가가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임윤지당은 당시 여성에게 요구된 지식의 경계를 넘어 남성의 지식 영역으로 들어가 성리학을 연구하고 글을 남겼다. 박윤원, 유한준과 같은 당대의 성리학자들은 임윤지당의 학문 세계를 그녀의 오빠이자 조선을 대표하는 성리학자인 임성주의 아류로 보거나, 부녀자의 학문이라고 해서 저평가하지 않고 남길 만한 업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임윤지당의 학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강정일당의 학문을 평가하는 데도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남성 지식인이 임윤지당의 학문을 인정한 근거는 첫째, 임윤지당의 학문적 견해가 깊이가 있고 역사에 대한 견해가 정밀하고 논리적이라는 점, 둘째, 여성의 글일지라도 훌륭한 글이라면 공자나 주자도 인정했다는 점, 셋째, 임윤지당의 학문적 성취는 공자나 주자가 인정한 여성들의 것보다

*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부교수

못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근거로 박윤원, 유한준 등은 여성의 글이라고 해서 문혀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임윤지당의 학문세계와 문장이 갖는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임윤지당에 대한 남성 지식인들의 인정은 강정일당을 평가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임윤지당의 예는 임윤지당이라는 한 개인의 학문에 대한 인정에서 여성의 학문에 대한 인정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여주고, 성리학 전통에서 목강(穆姜), 범녀(范女) 등 여성 지식인의 존재와 연결시키면서 문혀 있던 여성 지식인의 계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조선 후기 남성 지식인의 여성 지식인에 대한 평가가 변화하는 지점을 보여준다는 것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핵심어 : 남성 지식인, 여성 지식인, 임윤지당, 강정일당, 목강, 범녀, 박윤원, 유한준, 이규상, 임헌희

1. 서론

조선사회에서 여성이 시문을 쓰거나 학문을 하는 것은 여성의 역할, 여성에 대한 기대를 넘어서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일부 남성들은 부인이나 딸의 재능을 발견하고 교육하거나, 글쓰기를 지지하기도 했지만 지속적으로 글쓰기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는 드물었다. 딸의 학문적 자질을 발견하고 직접 가르친다 해도 경우도 있지만 다른 집안으로 시집보낸 뒤에 그것을 지속하게 하기는 어려웠던 것은 그것이 부덕(婦德)을 넘어서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조선 후기로 갈수록 임윤지당을 비롯해 강정일당, 이빙허각, 이사주당 등 사대부가의 부인들이 점차 시문은 물론 성리학을 비롯해 실용적인 학문 분야에 저서를 남기기 시작했고¹⁾, 여성의 시문이나 학문적 성과를 무시하거나 인색하게 평가했던 남성 지식인도 이들의 업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조선 전기에도 여성 지식인이 존재하고 그들이 남긴 저술이 전하지만 18세기 이후에는 여성 지식인의 저작이 양적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문집 간행이 늘어났다. 문집 간행이 늘어난 현상에 대해 박무영은 정일당의 문집 간행을 주도한 남편 윤광연의 태도와 문집에 글을 써준 남성 지식인들의 반응을 분석해서 그 이유를 제시한 바 있다. 박무영에 의하면 여성의 문집을 추진해주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첫째, 여성 문인이나 윤지당 같은 성리학자의 전례,²⁾ 둘째, 경화의 사족들이 가문 내 여성들의 문예를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전파한 청나라 문인들의 영향³⁾이다. 빙허각 이씨의 『청규박물지』를 연구한 박영민 역시 박무영의 견해를 수용하여 조선 후기 여성의 저술 활동 배경과 후원을 당시 조선과 청나라의 문예 교류 결과 조선 문단에 일어난 변화의 결과로 이해했다. 신위, 김정희, 김이양 등 19세기 문인들은 청대 예술가들이 자기 집안 여성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것이 조선 문단에서 여성 예술가들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⁴⁾

기왕의 연구에서 지적한 원인들은 18세기 이후 여성 지식인의 저술이나 문집 간행의 확대에 대한 설명으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여성의 지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한 인정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앞서의 논의에서 임윤지당과 같은 성리학자의 전례를 거론했지만 임윤지당이 남성 지식인들에게 어떻게 수용, 인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임윤지당(任允摯堂, 1721-1793)의 사례를 통해 여성 지식인의 학문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고자 한다. 임윤지당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

1) 김미란, 「조선 후기 여성 지식인의 출현과 저서들 연구」, 『기전어문학』 18:19-20, 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회, 2008, 52-69쪽.

2) 박무영, 「여성시문집의 간행과 19세기 경화사족의 욕망」, 『고전문학연구』 33, 한국고전문학회, 2008, 399쪽.

3) 위의 글, 401쪽.

4) 박영민, 「憑虛閣 李氏의 『淸閣博物志』」, 『민족문화연구』 7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89-290쪽.

재, 임윤지당은 사대부 가문에서 태어나 평생 성리학을 연구한 여성 지식인의 전형적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임윤지당은 역사 인물과 이기심성, 사단칠정 등 성리학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룬 논설을 남겼으며, 그녀의 글은 사후 남동생 임정주에 의해 『윤지당유고』라는 제목으로 간행되었다. 둘째, 임윤지당의 학문적 성취에 대해 남성 지식인들이 남긴 평가가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임윤지당은 조선을 대표하는 성리학자 중 한 사람인 녹문 임성주의 누이였던 점으로 인해 그녀에 대한 인정이나 평가는 임성주와 분리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윤지당의 학문에 대한 남성 지식인의 평가에서는 녹문의 영향력보다는 임윤지당의 학문적 성취, 여성의 학문적 성과에 더 초점을 맞추어 평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물론 제한적 범주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여성의 학문적 능력, 여성 지식인을 인정하는 변화를 보여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셋째, 임윤지당의 사례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여성 지식인에 대한 남성 지식인의 태도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임윤지당을 주 대상으로 다룬다.

조선시대에 학문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 ‘지식인’이라는 용어로 부르지는 않았다. 남성의 경우 선비로 통칭했고,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선비로 불렀다. 윤지당도 여사(女史), 즉 여성 선비로 불렸다. 김미란은 조선 후기의 여성 지식인을 생전의 업적을 문집 또는 저술로 남긴 여성들⁵⁾로 한정했고, 이남희는 여성 선비, 여중군자를 여성 지식인의 범주에 넣었다. 이남희는 여성 선비를 좁은 의미에서는 한문으로 글쓰기가 가능한 여성이면서, 시문을 넘어서 유교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던 지식인 여성들, 넓은 의미에서는 좁은 의미의 여성선비에다가 ‘수렴청정, 규범적인 생활, 수절, 절개, 효도와 공경, 내조와 근검절약’ 같은 사행(士行)을 지닌 여성을 가리킨 것으로 보았다. 여중군자는 그 연장선상에서 유학적 세계관 속에서 지향한 도덕적 인격체의 완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살다간 여성들을

5) 김미란, 앞의 글, 46쪽.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다.⁶⁾ 여성 선비나 여중군자에 대한 이남희의 견해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이 글에서는 여성 선비나 여중군자 또는 여성 학자라는 말 대신 여성 지식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여성 선비나 여중군자를 한문 글쓰기가 가능한 것으로 한정하면 실상 한글로 저작을 남긴 많은 여성들을 배제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여성 지식인을 생전의 업적을 문집이나 저술을 남긴 여성들로 한정하지 않고, 글쓰기가 가능한 여성이면서 교양을 갖춘 여성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이 글에서 중요하게 다룰 자료는 이규상(李奎象, 1727-1799)의 『병세채인록』 「규수록」 중 임윤지당 부분, 유한준(兪漢雋, 1732-1811)의 「윤지당고 서」, 박운원(朴胤源, 1734-1799)이 임윤지당의 동생 임정주에게 보낸 편지 「임치공에게」, 성해응(成海應, 1760-1839), 「이부인·곽부인·임부인」 등이다.

2. 임윤지당에 대한 남성 지식인의 평가

2.1. 여성의 학문에 대한 인정과 임윤지당

임윤지당은 자신이 직접 정리한 문집의 원고에 「이기심성설」, 「인심도심사단칠정설」, 「극기복례위인설」 등 성리학에 관한 글과 예양, 보과, 안자, 자로, 가의, 이릉, 사마온공, 왕안석, 악비 등 중국 역사의 중요한 인물을 다룬 글을 수록했다. 이 외에도 문집에는 경서를 읽고 깨달은 내용을 쓴 『대학』과 『중용』에 대한 경의(經義), 잠(箴), 명(銘), 제문이 수록되어 있다. 윤지당은 그의 오빠인 녹문 임성주(任聖周, 1711-1788)를 스승 삼아 평생 성리학을 연구하고 그 도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윤지당은 당시의 주류 학문으로 남성들의 영역이었던 성리학을 공부하고 그

6) 이남희, 「조선 후기의 ‘女士’와 ‘女中君子’ 개념 고찰: 지식인 여성 연구를 위한 시론적 접근」, 『歷史와 實學』 47, 역사실학회, 2012, 47쪽.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수립하고 이를 글로 써서 남겼다. 역사 인물에 대해서도 의리에 입각해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글을 남겼다.

윤지당 사후 문집이 간행된 뒤 남성 지식인들은 임성주, 임경주 등 윤지당의 형제들과 더불어 윤지당의 학문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그 학문적 재능을 인정했다. 윤지당에 대한 평가를 남긴 남성 지식인은 그녀와 동시대에 살았던 이민보(李敏輔, 1720-1799)를 비롯해 이규상, 유한준, 박운원 등이다. 먼저 이민보의 경우를 보자. 1794년에 쓴 『녹문집』 서문에서 이민보는 임성주, 임경주, 임윤지당을 나란히 언급했다.

공의 아우 경주(敬周)는 자호(自號)를 청천(靑川)이라고 하였다. 문장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으나, 불행히도 싹을 틔우고는 꽃을 피우지 못하였다. 여동생은 신씨의 아내로 경전에 대한 식견을 타고나서 성리(性理)와 인의(仁義)를 논한 것이 또 고금 여성들 중 일인자였다. 한 시대의 맑은 기운이 이렇게 한 집안에 모인 것이 어찌 이토록 성대하고도 기이한가?⁷⁾

이민보는 녹문보다 9년 아래로 녹문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교류했고, 녹문 사후 묘지명도 쓴 인물이다. 그는 녹문의 뛰어난 점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형제, 아버지 임적을 언급하고 여기에 윤지당을 포함했다. 이민보는 윤지당이 성리학에 뛰어난 자질이 있고, 고금 여성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평가했다. 이민보가 여성의 지식이나 학문 성취에 대해 늘 같은 태도를 취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묘지명, 행장 등도 꽤 남겼는데 여성의 지식, 부덕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였다. 친구인 서효수의 부

7) “公有弟敬周，自號靑川。有文章逸才，而不幸苗而不秀。女弟申氏婦，天授經識，性理仁義之論，又古今閨閣中一人也。一時清淑之氣，鍾於一門如此，何其盛且異也。” 이민보, 「녹문선생문집 서문」, 『녹문집』 서(序) (『한국문집총간』 228권, 한국고전번역원, 2001, 3쪽).

인 이씨를 위해 쓴 묘지명에서 이민보는 이씨 부인이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읊기도 하고, 중국 역사나 우리나라 역사를, 역대의 연호, 가문에 대해 꿰뚫어 알 정도로 총명하고 박식했으나 안으로 이를 감추어서 자손 이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고, 자신도 가까이 살면서도 알지 못했다고 썼다.⁸⁾ 이씨 부인은 연안 이씨로 월사 이정구의 후손이고, 김창립의 외손녀였다. 그녀는 실제 글을 써서 남긴 것은 없지만 학식이 뛰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그녀가 뛰어난 식견을 지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었고, 이민보는 그것을 이씨 부인의 현숙함으로 평가했다. 윤지당의 경우는 부인의 재능은 감추는 것이 미덕이라는 평가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윤지당이 녹문의 누이라는 점 때문이 아니고, 성리학에 뛰어난 자질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규상은 18세기 조선의 다양한 인물들의 행적과 일화를 모은 『병세제언록』을 저술하면서 윤지당을 포함시켰다. 이규상은 당대의 인물들을 유림, 고사(高士), 문인, 무관, 서예가, 화가, 역관, 기인, 귀화인 등으로 분류하고 여성은 규열록, 규수록으로 나누었다. 그는 윤지당을 규수록에 포함시키고 윤지당이 쓴 글 <척형명>과 <심잠>을 수록했다.

녹문 임성주의 누이 임씨는 경종 신축년(1721) 생으로 호는 윤지당(允摯堂)이다. 원주의 선비 신광유(申光裕)에게 시집갔는데, 일찍이 홀로 되어 자식이 없으며, 지금 승지 신광우(申光祐)의 형수이다. 이학(理學)에 타고난 재주가 있어, 경전(經傳)을 익혀서 나이가 70이 가깝도록 매일 경전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경생가(經生家)와 같았다. 저술을 하는 데는 경전에 대한 의문을 따지고 밝히는 일이 아니고는 쓰지 않았다. 경전의 뜻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친정 오라비인 녹문(鹿門)과 운호(雲湖) 임정주(任靖周)와 왕복한 것이 많았다. 이는 부인이 원주에 살고, 녹문 형제는 공주에 살았기 때문이다. 다른 저술로는 집안의 제문과 정렬부녀(貞烈婦女)를 위해 지은

8) 이민보, 「정경부인 이씨 묘지명」, 『풍서집』 9, (『한국문집총간』 232권, 474쪽); 김남이 역주, 『18세기 여성생활사자료집』 8, 보고사, 2010, 371쪽.

전이 있다. 나는 임씨 가문의 인척인 때문에 그 집안으로부터 부인이 이학과 글을 잘 했던 것을 익히 들었다. 그 제문과 경의(經義)를 보니, 견식과 문장 솜씨가 스스로 일가를 이루고 있어서, 규방 사이에서의 시 한 수, 글 한편의 재주와 같은 것이 아니요, 바로 조대가(曹大家)와 나란히 놓을 만하다. 그의 특이한 재주는 단지 부녀자의 숨겨진 덕으로 그칠 일이 아니므로 규열록(閨烈錄)에 넣지 않고 규수록(閨秀錄)에 넣은 것이다.⁹⁾

이규상은 윤지당을 이학(理學)에 뛰어났으며, 남자 형제와 함께 경전을 연구했다고 그녀의 학문과 저술을 소개했다. 윤지당의 저술에 대해 이규상은 식견과 문장이 뛰어나 규방 안의 시문으로만 볼 수 없으며 후한 시대 여성 학자로 『여계』를 쓴 조대가와 나란히 놓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규상의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은 윤지당의 재능을 부녀자의 숨겨진 덕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유교의 가르침은 여성은 재능이 있어도 그것을 숨기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규상이 윤지당을 보면서 재능을 숨기는 것이 여성의 미덕이 아니라고 언급한 것은 기존에 부덕이라고 간주한 경계를 넘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윤지당의 학문적 재능을 인정하고 이규상이 한 일은 임윤지당을 규열록이 아니라 규수록에 넣은 것이지만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조선시대에 가장 높이 평가받은 여성들은 열녀들이었다. 열이라는 유교 윤리를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는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열녀전이 많이 기록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규상은 윤지당의 학문적 견해와 문장을 인정하고 규열록이 아니라 규수록에 넣었다. 이는 여성의 열행만이 아니라 재능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⁰⁾ 이규상은

9) 이규상, 『18세기 조선인물지-并世才彦錄』, 민족문화사연구회 한문학분과 옮김, 창작과비평사, 241쪽.

10) 남성 인물의 분류에 비해 여성 인물의 분류가 소략한 것은 여성의 활동에 사회적 제약이 가해진 것에 기인하지만 여성을 보는 시각이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19세기 이후 여성들을 다룬 저술들은 보다 세분화된 분류를 보여준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임성주 항목에서도 임명주, 임경주, 임정주를 거론하면서 “누이동생도 경전을 널리 연구하여 저술을 잘하였다.”¹¹⁾고 다시 언급했다. 이는 윤지당을 형제들의 그늘에 두지 않고 학문적 재능이 있는 독자적인 학자로 인정했음을 보여준다

윤지당에 대한 호평은 노론계 낙론 학자를 통해 이어졌다. 박윤원은 1817년 윤지당의 동생 임정주에게 보낸 편지에서 윤지당의 학문에 대해 칭찬하며 규방 안의 일이라고 해서 감추어서는 안 된다고 쓰고 있다.

녹문 어른의 유집은 이미 판각에 부쳤다고 들었습니다. 귀현의 박봉으로 이를 마련하셨으니 지극한 정성이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케 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어찌 우리 학문의 다행함이 아니겠습니까? 누님이신 윤지당의 학문이 고명하여 부인의 몸으로 탁월하게 유자의 일을 하셨으니 기이하고도 대단합니다. 이는 타고난 자질이 맑고 바르실 뿐만 아니라 형제들 간의 가르침의 효과이기도 하니 귀택의 시와 예의 성대함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존형과 어울린 지 수십 년인데 여기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으신 것은 왜입니까? 어찌 규방 안의 일이라고 해서 재능을 안으로 감추어야 합니까? 이제 그대로부터 처음 듣고 비록 그 문자를 보지는 못했지만 덕과 학문이 크게 이루어졌음을 알겠고, 무릎을 치며 탄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인 중 문장을 잘한 사람으로 옛날 조대가가 있었으나 도학에 있어서는 태임, 태사 이후로 과연 또 누가 있습니까? 이 분은 거의 수천 년 이래 한 사람일 뿐이니 이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술하신 바가 또 찬연히 빛나니 이는 마땅히 전하여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어찌 부인의 것이라고 물어둘 수 있겠습니까? 훗날의 여사(女士) 중 반드시 이를 본받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¹²⁾

11) 이규상, 앞의 책, 24쪽.

12) “聞鹿門丈遺集已付劔。以貴縣薄俸，乃能辦此，誠意之篤至，令人感歎。茲事若成，則豈非斯文之幸耶。令姊氏允摯堂，學問高明，簪珥之身而卓然爲儒者事業，奇哉偉哉，是不特天資純正，亦惟鶴原間薰陶之效，高門詩禮之盛，斯可見矣。愚之從尊兄遊數十年，不一言提及，何也。豈以閨閣中事，而體其含章之意耶。今因得汝始聞之，雖未見其

이 편지에 의하면 임정주는 수십 년 간 교유한 박윤원에게도 누이의 학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다가 1817년 무렵에야 이야기를 한 것 같다. 박윤원은 윤지당의 문집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아직 읽어보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그의 평가는 윤지당의 학문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부인의 몸으로 유자의 일을 한 것’에 대한 것으로 여성이 남성의 학문을 한 것에 대해 기이하고도 대단하다고 놀라움을 표현했다. 박윤원은 부녀자가 도학을 공부한 것은 중국의 태임과 대사 이후에는 없을 것이라고 하며 역사에서 그 예를 찾고 저술이 뛰어나다면 마땅히 후세에 전해야 한다고 했다. 유교 가부장제는 여성의 역할을 술과 밥을 의논하는 데 한정하고 재능이 있어도 드러내지 않고, 글이 규방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박윤원은 여자의 글이라고 해서 물어들 수 없으며, 이를 남겨 후세의 여자들 중에 본받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윤지당 개인의 재능을 인정하고 문집 출간을 옹호한 데서 나아가 여성의 학문적 재능에 대한 인정으로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훗날 이를 본받는 여자가 있을 것이므로 물어들 수 없다는 말은 앞으로도 윤지당 같은 여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열어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지당에 대한 평가가 여기서만 그친 것은 아니다. 규장각의 검서관을 지낸 실학자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은 학문이 뛰어난 세 여성으로 설봉(雪峯) 이부인, 청창(晴窓) 곽부인, 윤지당 임부인을 들고, 윤지당에 대해 사학과 문장에 뛰어났다고 기록했다. 성리학에 뛰어난 것으로 평가해 온 기존의 견해와는 달리 성해응은 윤지당의 사학을 높이 평가했다.

임부인은 호가 윤지당으로 풍천 임씨이다. 그 형제가 모두 학문을 좋아했는데 성주는 경학과 행실로 이름이 났고, 상주는 문학으로 일컬어졌으며, 부

文字, 亦知德學大致, 不勝擊節而欽歎焉。婦人之能文章, 古蓋有曹大家, 而至於道學, 任姒之後, 果復有誰歟。此殆數千年一人而已, 既已超絕乎倫類, 所著述又燦然, 則是宣傳之百世而不朽也, 何可以巾幗而掩之哉。後之女士必有取法焉者矣。” 박윤원, 『근재집』 권8, 「임치공에게」(『한국문집총간』 250권, 153쪽).

인은 사화에 뛰어났는데 문장도 모두 전아하고 알차서 본보기로 삼을 만했다. 자질들과 옛날 성현과 호걸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계속 이어져 끊이지 않았으며, 듣는 사람이 시원하지 않음이 없었다. 시집가서 신○○의 부인이 되었다. 문집이 세상에 돌아다닌다.¹³⁾

성해응은 윤지당 형제가 모두 학문을 좋아했다고 하며 녹문, 상주¹⁴⁾, 윤지당 세 사람을 들었다. 상주는 집안 형제인데 성해응이 착각해서 넣은 것 같다. 성해응은 남자 형제들과 윤지당을 동등하게 거론했으며 윤지당의 문집을 직접 보고 윤지당의 역사적 견해와 문장을 높이 평가했다. 성해응은 윤지당의 문집이 세상에 돌아다닌다고 하면서 부녀자의 덕과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세상에 돌아다닌다는 말은 짧지만 그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이는 당시 여성의 문집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율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비난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여성의 학문이나 글쓰기에 대해 남성 지식인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2. 여성 지성사의 계보와 임윤지당

18세기의 문장가 유한준은 윤지당의 조카인 임로를 통해 윤지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윤지당유고』를 읽은 뒤 서문 「윤지당고 서」를 썼다. 이 글에서 유한준은 남녀의 교육, 여성 학자의 전례를 떠올리며 윤지당 학문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평가했다. 먼저 유한준은 남자와 여자가 애초부터 다른 교육을 받은 것부터 언급한다.

13) “任夫人號允擊堂，豐川人。其兄弟並好學，曰聖周以經行聞，曰相周以文學稱，夫人長於史學，爲文皆典實，可爲師法。與子侄談說古時賢聖豪傑，纒纒不已，聽者無不洒然。嫁爲申○○婦，有集行于世。” 성해응, 「李夫人郭夫人任夫人」, 『연경재전집』 권 56 (『한국문집총간』 275권, 174쪽).

14) 상주(相周)는 녹문의 사촌형으로 『녹문집』 권 10에 상주에게 보낸 편지가 실려 있다. 성해응이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하·은·주 삼대에는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상하귀천을 막론하고 말을 배우고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배움에 들어가서 작게는 청소하고 응대하고 나아가고 물리가는 범절에서부터, 크게는 이치를 탐구하여 마음을 바르게 하며 수기치인하는 도리에 이르기까지, 그 속에 흠뻑 젖어 떳떳함에 거하기를 자기 방에 있는 듯이 하고 배고파 밥 먹고 목말라 차를 마시는 듯이 하니 대개 이것을 버려두고는 남자에게는 다른 일이 없다. 그러나 부녀자의 교육은 그렇지 않아서, 『예기』에서 이른바 “삼배와 모시와 실과 누에고치로 바느질하고 방직하고 여자의 일을 배워서 옷을 짓고 제사를 살피며 술과 장과 제기와 장아찌와 젓갈을 준비하여 예에 따라 제전을 마련한다.”하였고, 『시경』에 경계한바 “잘못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없이 오직 술과 밥을 준비할 따름”이라 하였다. 이것이 선왕의 다스림이요 성인의 가르침이다.¹⁵⁾

유한준이 예로 든 『예기』와 『시경』의 구절은 유교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는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널리 인용되어 온 것들이다. 유한준은 남자와 여자가 애초부터 달리 교육을 받았고, 여자에게는 학문하는 것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이는 성인의 다스림이고 가르침이라고 하여 『예기』와 『시경』에서 규정한 것을 그대로 수용한다. 그러나 유한준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남성들에 의해, 남성들의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된 경전이지만 여성들의 흔적이 있음을 주목한다. 『시경』과 『역』에 실린 여자의 시와 해설이 그것이다.

이 모두 부녀자에게 학문을 책임지운 적은 없다. 그러나 간혹 규중에는

15) 유한준, 『윤지당고 서』, 『자저준본』 1권 (『한국문집총간』 249권, 509쪽). “三代盛時 男子生, 亡論上下貴賤, 自學語已驅而內之於學, 小之自灑掃應對進退之節, 大而至窮理正心修己治人之道, 薰染浸灌於其中, 恒居常處如房室, 飢食渴飲如茶飯, 蓋捨此男子無餘事也. 惟婦人之教則不然, 禮所許, 祇執麻枲治絲繭, 織紝組紃, 學女事以供衣服, 觀於祭祀, 納酒漿籩豆菹醢, 禮相助奠. 而詩之所誦, 亦在於無非無儀, 維酒食是議, 先王之治之也, 聖人之教之也.”, 이경하 역주, 『18세기 여성생활사자료집』 2, 보고사, 2010, 583쪽.

영특한 자질과 밝은 식견을 가진 부인이 가르침이 느슨하고 풍속이 무너진 끝에 왕왕 나오는데, 한 마디 말과 한 가지 일이라도 채록할 만한 것이 있으면 성인도 이를 버리지 않았다. 때문에 위나라 장강(莊姜)과 허목부인(許穆夫人)의 시가 『국풍』에 실렸던 것이다. 무릇 시는 일시의 성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데도, 오히려 빠뜨리지 않았는데, 하물며 학문이 깊고 하늘과 사람의 성명의 근원에 통달한 것임에랴. 원형이정(元亨利貞)의 정(貞)에 대한 이해는 목강(穆姜)에게서 시작되었고, ‘마음에 어찌 들고 넓이 있는가’ 하는 주장은 범씨(范氏)의 딸에게서 나왔다. 이들이 천고에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어찌 배 짜고 바느질하는 사이에서 영험한 지식이 나왔기 때문이 아니겠는가!¹⁶⁾

유한준은 뛰어난 부녀자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곧바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유한준은 뛰어난 여성은 가르침이 느슨해지고 풍속이 무너진 끝에 나왔다는 말로 이러한 현상을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하지만 장강과 허목부인, 목강과 범녀 등 시를 남기거나 유학의 중요한 개념에 해설을 남긴 여성들의 예가 경전에 실려 있고, 주자도 이를 거론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이를 임윤지당을 평가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 장강은 춘추시대 위나라 대부 장공(莊公)의 정비(正妃)였다가 장공이 첩을 총애하는 바람에 정실 자리에서 쫓겨난 인물로 그녀가 쓴 시 ‘녹의(綠衣)’, ‘연연(燕燕)’이 『시경』 「패풍(邶風)」에 실려 있다. 허목의 부인은 위나라가 망하자 급히 돌아가려 하다가 허나라 대부들이 말려서 돌아가지 못했으나 이로 인해 예의를 아는 인물로 일컬어졌다. 그녀가 쓴 시 ‘재치(載馳)’도 『시경』 「용풍(邠風)」에 실려 있다. 유한준이 학자로 든 목

16) 유한준, 위의 글, “皆未嘗責以學問。而乃或於閨閣中，有英姿朗識，往往出於教弛風頹之餘，一言有可錄，一事有可採，則聖人不棄焉。此所以衛莊姜許穆夫人之詩，見列於國風者也。夫詩不過一時性情之所發也，而猶在於不刪，而況於深於學而通於天人性命之原者。元亨利貞，貞之解始於穆姜，心豈有出入之說，出於范女。千古以爲高者，豈非以麻枲組紉之間，乃有此靈識哉。” 이경하 역주, 앞의 책, 583-584쪽.

강은 춘추 시대 노나라 선공(宣公)의 부인을 말한다. 목강은 동궁에 유폐되어 있었을 때에 사관이 얻은 점괘를 듣고 원형이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는데 공자가 이를 <건괘 문언(文言)>에 그대로 실었다. 이후 목강의 해석은 원형이정에 대한 최초의 해석으로 수용되었다. 마지막으로 든 범녀는 범순부(范純夫)의 딸로 맹자가 마음에 대해 논한 것을 비판한 인물이다. 범녀는 맹자가 마음을 논한 것을 읽고 “맹자는 마음을 알지 못했다. 마음이 어찌 출입(出入)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송의 학자 정이(程頤)가 이 말에 대해 “이 여자가 맹자는 알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제대로 알았다.”고 평가했다. 주자는 “순부의 딸이 자기 마음은 알았지만 맹자는 알지 못했다. 이 여자가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실제 상황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입이 없다고 말한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출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다. 이는 비유컨대 병에 걸리지 않으면 남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언급했다.¹⁷⁾ 조선의 학자들도 범녀에 대한 견해를 남겼다. 장유는 <계곡만필>에 범녀가 말한 내용과 정이와 주자의 견해를 신고 있고, 송시열과 임성주도 범녀가 말한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범녀의 견해가 중국과 조선의 성리학자들로부터 중요한 견해로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

유한준은 장강, 허목부인, 목강, 범녀가 영험한 지식이 있다고 보면서도 이들이 역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길쌈하고 베 짜는 여가에 지식을 쌓은 결과라고 보았다. 이 여성들이 여자의 일을 제쳐두고 시문이나 학문에만 열중한 것이 아니라 여자의 일, 즉 여공을 하는 여가에 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여자의 학문적 재능을 인정하는 데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유한준은 윤지당이 남자 형제들과 함께 같이 닦아 학문을 이룬 것은 세상에 드문 일이라고 평가했다.

서하 임씨 가문에 여군자(女君子)가 있었으니 호가 윤지당이다. 아버지

17) 정민정, 『심경부주』 권3, ‘우산지목장’ (성백효 역주, 『심경부주』, 전통문화연구회, 2002, 248-288쪽).

는 고(故) 함흥판관 임적(任適)이다. 함흥공은 5남 1녀¹⁸⁾가 있었는데, 다섯 아들이 모두 경술과 문장으로 당대에 이름을 드러냈다. 부인은 그 딸로서 다섯 형제들 속에서 서로 같고 닦아 마침내 학문을 이루었으니 세상에 아직 없던 일이다. 나는 일찍이 부인의 친족인 임로(任魯)에게서 부인의 현숙함에 대해 매우 자세히 들은 적이 있다. 또한 임로로 인하여 이른바 『윤지당 유고』를 얻어 볼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은 성(性)과 천명과 인심과 도심에 관한 논변이었고, 그 뜻은 간혹 깊이 나아가 유독 높은 경지에 이르러 목강과 범씨 딸의 짧은 경구보다 못하지 않았다. 역사를 논평한 것도 정밀하고 투철하면서 조리가 있고, 문장은 모두 상세하면서도 번다하지 않고 우아하면서도 궁색하지 않아 암송할 만하다. 아아, 얼마나 기이한가!¹⁹⁾

유한준은 윤지당의 글을 인심도심론, 역사, 문장 세 가지로 나누어 평가한다. ‘성(性)과 천명’, ‘인심과 도심에 대한 분석’은 그 논지가 심오하고 독창적이어서 목강이나 범씨의 빼어난 단편에 뒤지지 않으며, 역사 논평은 정교하게 통하여 조리가 있고, 문장은 구체적이면서도 장황하지 않고, 우아하면서도 궁색하지 않아서 암송할 만하고 높이 평가했다. 유한준은 윤지당이 책을 쓴 것이 부인의 일을 넘어서는 것임을 지적하면서도 윤지당 같은 사람이 학문에 힘을 쏟아 세상의 교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내린다. 결국은 윤지당의 학문의 의의를 인정한 것이다. 앞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여성이 문집을 출간하는 것은 당시의 여성 규범을 넘어서는 것이다. 여기에 서문을 써 준다는 것은 여성 문집의 출간을 인정한다는 것을 언표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난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한

18) 유한준의 잘못된 기록. 실제로는 5남 2녀임.

19) 유한준, 앞의 글, “西河任氏有女君子, 允擊堂其號也. 父曰故咸興判官諱適. 咸興公有五子一女, 五子皆以經術文章顯名當世. 而夫人以其一女, 居五甥中, 相磨礱爲學, 學遂以成, 世未有也. 余嘗得夫人賢於爲其族子者曰魯甚詳. 旣又因魯而得見其所謂允擊堂遺稿者, 其言性與天命與人道心辨, 其旨或深造獨詣, 無讓乎穆范單辭之警拔. 而論史亦精透有條理, 其爲文辭類皆詳而不緜, 婉而不迫, 可誦也. 嗚呼其異矣.”, 이경하, 앞의 책, 584-585쪽.

준은 중국의 구양수가 여성 시인 사회맹의 시집에 서문을 써 준 것을 전례로 가져왔다.

이제 이 책을 돌려주며 말한다.

이것이 부녀자가 마땅히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대 조정에서 흥기했던 교화를 여기서 볼 수 있다. 비록 부녀자이지만 부인과 같은 이는 학문을 돈독히 해서 세상의 교화에 도움을 주었다. 아아, 지금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는가. 옛날 구양공(歐陽公)은 사회맹(謝希孟)의 시집에 서문을 써주면서, ‘후세에 믿음을 줄 수 있는 걸출한 대가가 한결같이 희맹을 중하게 평가한다면 문혀 사라지지 않겠으나 스스로 내 힘이 부족한 것이 한스럽다’고 했다. 하물며 부인의 이 책과 같은 것을 끝내 문혀 사라지게 할 수 있겠는가. 아아, 내가 다시 어찌 하겠는가! 내 다시 어찌 하겠는가! 부인은 평산 신광유에게 시집갔다. 죽었을 때 나이가 일흔이었다.²⁰⁾

유한준은 구양수가 사회맹을 위해 쓴 서문은 「사씨시서(謝氏詩序)」를 전례로 삼아 윤지당의 문집이 후세에 전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자신이 여성의 문집에 서문을 써주는 것이 크게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은연 중 드러낸다. 「사씨시서」에 의하면 구양수는 사회맹의 오빠인 사경산(謝景山)을 통해서 사회맹의 재능을 알게 되었다. 구양수는 사경산의 어머니 묘지명에서 부인이 학문을 좋아하고 경학에 통달해서 아들을 가르쳤다는 구절을 보고 사경산의 재능이 어머니의 현명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회맹의 시 100여 편을 보니 어머니의 재능이 딸에게도 이어졌음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남매의 시에 대해 평하며

20) 유한준, 앞의 글, “今是書借曰非婦人所宜, 猶足以見 先朝作興之化. 雖在婦女, 有如夫人者, 敦學問以補世教. 嗚呼, 今何可得也. 昔歐陽公序謝氏希孟詩集, 以謂有傑然鉅人能信後世者, 一爲重希孟, 不泯沒矣, 而自恨其力不足. 況如夫人此書, 其可以終泯沒乎. 嗚呼, 余復何爲哉. 余復何爲哉. 夫人嫁平山申光裕, 卒時年七十.”, 이경하, 앞의 책, 585-586쪽.

사경산의 시는 두보와 두목의 글을 배워 웅건하고 고아한 것을 스스로 좋아한다고 하고, 희맹의 시에 대해서는 더욱 함축적이고 심후하며 예를 지켜 스스로 방임하지 않아 옛날 유한한 숙녀의 기풍이 있으니 부인으로 시만 잘 짓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사경산은 당대의 뛰어난 인물들과 교류해서 이름이 알려진 데 비해 사회맹은 여자라서 스스로 세상에 드러나지 못했다. 구양수는 사회맹과 사경산을 각각 독자적인 기풍을 가진 시인으로 평가했으나 사회맹이 여자인 까닭에 알려지지 못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구양수는 이 점을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썼다.

옛날 위장강과 허목부인의 시가 공자에게 채택되어 『시경』 「국풍」에 나란히 들어 있는데, 지금 당대의 사람을 포폄하여 후세에 믿음을 줄 수 있는 걸출한 대가가 한번 희맹을 위하여 중하게 평가한다면 그녀의 문장은 문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실로 힘이 부족한 자이니 다시 어찌 하겠는가, 다시 어찌 하겠는가. 희맹은 진사 진안국에게 시집갔고, 죽었을 때의 나이는 24세였다.²¹⁾

유한준의 글 마지막 부분은 위에 인용한 구양수의 「사씨시서」의 마지막 부분과 거의 유사하다. 앞서 위 장강과 허목부인을 든 것도 비슷하다. 유한준은 윤지당을 성리학자로 인정했으나 여성이기 때문에 평가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이다. 부녀자의 영역을 넘은 학문 연구는 부덕을 넘어서고 조선에 그 전례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한준은 중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윤지당의 학문을 평가했다. 그 결과 경전에 포함된 여성의 시나 독자적 견해를 전개한 여성의 논설이 거론되고, 비록 간략하지만 여성 학문의 전사(前史)가 그려지면서 윤지당이 그 맥락 위에 놓이게 되

21) “昔衛莊姜許穆夫人，錄於仲尼而列之國風，今有傑然巨人能輕重時人而取信後世者，一爲希孟重之，其不泯沒矣。予固力不足者，復何爲哉，復何爲哉。希孟嫁進士陳安國，卒時年二十四。” 구양수, 「謝氏詩序」, 『당송팔가문초』, 송대가구양문충공문초 권 17, <序>, 전통문화연구회, 한국고전번역원 DB.

었다. 태임과 태사를 어머니와 부인의 모범으로 삼던 테서 벗어나 여성 지식사의 계보가 그려진 것이다. 윤지당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여성 지식인이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다는 점을 증명한 것이다. 또한 여성의 글을 인정하는 예가 그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구양수라는 대가를 통해 입증했다.

이상의 예를 통해 여성의 학문이나 여성의 글쓰기를 바라보는 남성 지식인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윤지당의 학문을 적극 인정하고 나아가 여성의 학문을 인정하고 있다. 윤지당의 학문을 인정한 것은 윤지당이 성리학을 연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윤지당이 남성 지식인의 인정과 평가, 승인 속에서만 그 존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주변적 존재라는 사실을 더욱 더 확인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들의 인정과 평가를 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과 평가를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은 이를 통해 윤지당을 비롯한 여성 지식인들의 존재가 조선 사회에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 남성 지식인들은 윤지당의 학문을 남성 지식인의 계보 속에서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윤지당을 여성 지식인의 계보 속에서 인정했다. 예외가 있기는 하다. 윤지당의 아우인 임정주는 윤지당의 학문이 유래가 있다고 하여 김장생의 문하에서 수학한 고조부, 권상하의 문하에서 공부한 조부와 아버지, 이재의 문하에서 공부한 오빠 임성주를 들었다.²²⁾ 윤지당의 학문을 가학(家學)에서 연원했다고 하면서, 다시 이를 김장생, 권상하, 이재 등 당대 주류 성리학자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성 지식인들은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윤지당을 여성으로 분류하는 젠더의식이 작동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2) 임정주, 「유사」, 『윤지당유고』 부록 (『한국문집총간』 속 84권, 한국고전번역원, 2009, 470쪽).

3. 성리학의 전통과 여성 지식인의 존재

이상에서 임윤지당의 문집에 대한 반응을 통해 여성 지식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남성 지식인들이 보기에 윤지당은 유교적 덕목에 배치되는 존재였을 것이다. 남성들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던 성리학을 연구하고 한문으로 글을 썼으며, 문집 간행을 염두에 두고 정리한 글은 윤지당 사후 세상에 돌아다녔다. 그런데 윤지당은 성리학의 전통에서 보면 성리학을 공부하고 실천하여 성인이 되기 위해 노력한 가장 모범적인 성리학자라 할 수 있다.²³⁾ 한편 윤지당은 여성도 성인이 될 수 있는가를 질문하여 남성 지식인과는 다른 주체임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주기도 한 존재였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성도 성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반응이다. 윤지당의 학문을 높게 평가한 남성 지식인 누구도 이 질문에 주목한 사람은 없었다. 여기에 주목한 사람은 오직 여성인 강정일당이었다.

이처럼 남녀 지식인의 수용 방향이 조금 다르기는 했으나 조선 후기 남성 지식인들은 윤지당을 비롯해서 성리학을 공부한 여성 지식인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음은 강정일당에 대한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정일당은 윤광연의 부인으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성리학을 연구하고 글을 남겼다. 정일당은 특히 윤지당의 학문에 영향을 받아 부녀자라도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정일당의 문집은 사후 남편 윤광연이 당시의 명망 있는 인사들에게 서문을 받아 출간되었다. 그런데 임헌회(任憲晦, 1811-1876)가 쓴 다음 글은 정일당에 대한 당시의 평가와 더불어 윤지당이 거론되는 양상을 보여주며, 나아가 여성 지식인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보여준다. 임헌회는 매산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의 문인이며 낙론 학자의 계보를 잇는 학자이다. 다음 편지는

23) 이숙인은 윤지당이 가부장적 지식 체계를 거부하거나 전복하기보다 수용하여 적극 내재화했다고 보았다. 이숙인, 「조선시대 여성 지식의 성격과 그 구성원리」, 『동양철학』 23, 한국동양철학회, 2005, 101쪽.

동문인 한운성(韓運聖, 1802-1863)에게 보낸 것으로 정일당과 윤지당 등 여성 지식인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돌아가신 선생님께서 지으신 윤광연 부인 정일당에 대한 글-이는 그 문집의 서문 혹은 발문인 것 같습니다-을 내가 두려고 하니 여러 어른들이 학문은 부인의 본색이 아니고, 또 윤광연이 부족한 바가 있으니 빼버리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끝내 석연치 않습니다. 잘못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없고 오로지 술과 음식만을 의논하는 것이 비록 부인의 일이라 하더라도 만약 자질이 맑고 바르며 학문이 높은 사람이라면 더욱 기이한 일인데 어찌 규방의 여자에게 마땅치 않다고 해서 묻어 놓고 밝히 드러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윤광연의 부족함은 윤광연의 일이니 그 부인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이제 근제가 윤지당의 일에 대해 칭찬한 것을 보니 “부인 중 문장을 잘한 사람으로 옛날 조대가가 있었으나 도학에 있어서는 태임, 태사 이후로 과연 또 누가 있습니까? 이 분은 거의 수천 년이래 한 사람일 뿐이니 이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술하신 바가 또 찬연히 빛나니 이는 마땅히 전하여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어찌 부인의 것이라고 물어둘 수 있겠습니까? 훗날의 여사(女士) 중 반드시 이를 본받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무릇 불가한 것이 있다면 근옹이 어찌 이렇게 까지 찬미하셨겠습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이 문장을 쓰셨고, 근옹의 뜻도 다시 그대로 두어 묻혀 사라지지 않게 하자는 것이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학문이 부인의 본래 할 일이 아니니 일절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 범씨 딸의 마음에 대한 식견이 어떻게 이천(伊川)에게 인정을 받았으며, 여양(驪陽)부인이 예를 논한 것을 우암(尤庵) 또한 어떻게 칭찬했겠습니까? 바라건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²⁴⁾

24) “先師所撰尹光演夫人精一堂文字-似是其文集序或跋-, 愚欲存之, 則諸賢以爲學問非婦人本色, 且有所不足於尹, 力言刪去. 愚意則終未釋然. 蓋無非無儀, 惟酒食是議, 雖是婦人事, 如有姿質純正, 學問高明之人, 則尤其是奇事, 何可以非所宜於閨閣, 而不爲之

여기서 돌아가신 선생님은 홍직필을 말한다. 이 편지는 홍직필 사후 문집을 정리하던 중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 홍직필이 죽은 뒤 아들인 홍일순(洪一純)이 아버지의 글을 정리했으나 일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그 뒤 임헌회, 한운성 등 제자들이 문집 간행을 주도했다.²⁵⁾ 위 편지는 이 과정에서 문집에 어떤 글을 넣고 어떤 글을 빼 것인지 논의하던 중에 강정일당에 관한 글을 빼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다. 임헌회의 편지는 정일당에 관한 글을 빼자는 의견에 반대하며 쓴 글이다.

임헌회는 학문은 부인이 할 일이 아니고 윤광연도 부족한 사람이니 강정일당의 글을 빼자는 의견에 대해 이렇게 답하고 있다. 뛰어난 학문이 있는데 어찌서 규방의 여자에게 마땅치 않다고 해서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가, 윤광연의 부족함은 윤광연의 일인데 정일당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어서 그는 근재 박윤원이 윤지당에 대해 평가한 것을 근거로 들어 자신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박윤원은 홍직필의 스승으로, 스승의 스승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이천, 송시열이 여성의 학문을 인정한 예를 들며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 편지에 대해 바로 쓴 답장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한운성은 1857년 12월에 임헌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정일당의 문자가 삭제당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겠다고 했다.

임헌회는 이 글이 정일당의 문집 서문이나 발문인 것 같다고 했으나 이는 『매산집』 43권에 실린 「유인 진주 강씨 묘지명」을 말하는 것으로

幽顯闡微乎。且尹之不足，自是尹之事，何與於其夫人哉。今觀近齋所稱允塾堂事，有云婦人之能文章，古蓋有曹大家，而至於道學，任姒之後，果復有誰歟。此殆數千年一人而已，既已超絕乎倫類，所著述又燦然，則是宜傳之百世而不朽也，何可以巾幗而掩之哉。後之女士必有取法焉者矣。夫豈不可者，而近翁贊美之至此哉。吾先師之作此文字，亦近翁之意也，仍復存之，俾不泯滅，未知如何。如必以學問，非婦人本色，一切不取，則范女之識心，何以見許於伊川，騷揚夫人之論禮，尤庵亦何以稱之哉。幸更商之。”
임헌회, 『고산선생문집』 권3, 「한문오 운성에게」(『한국문집총간』 314권, 73쪽).

25) 『매산집 해제』, (『한국문집총간』, 한국고전번역원 DB).

26) “精一堂文字之不合見刪，謹悉教意。” 한운성, 『임헌문집』 권 7, 「임명로에게 답함[答任明老]-丁巳十二月」(『한국문집총간』 124권, 고전번역원, 2011, 551쪽).

보인다. 홍직필의 문집에 정일당 서문이나 발문은 보이지 않고, 이 글만 실려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정일당유고』에 신기 위해 그 남편 윤광연이 청탁했던 글로 생각된다. 묘지명의 서두에서 홍직필은 그 남편 윤광연이 정일당이 쓴 유고를 가지고 와서 글을 부탁했다는 말을 쓴 뒤 정일당의 문장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헌회와 한운성 사이의 논란은 결국 정일당에 대한 글을 신기로 한 것으로 일단락되었으나 여성의 학문에 대한 남성 유학자들 간의 논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학문은 부인의 본색이 아니라거나 남편인 윤광연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부인의 일은 술과 밥을 마련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유교의 여성 관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며, 남편을 이유로 드는 것은 부인을 남편에 종속된 것으로 보는 삼중지도의 관념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헌회는 뛰어난 학문이 있는데 규방의 여자에게 마땅치 않다고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가, 남편의 부족함은 남편의 일인데 부인과 무슨 상관이 있는냐고 명쾌하게 논박했다. 여기서 윤지당에 대한 이전 성리학자의 평가와 범녀, 여양부인에 대한 정이천이나 송시열의 평가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이 논란까지 포함해서 윤지당의 학문을 높이 평가한 인물들은 대체로 낙론계 학자들이다. 이들은 김창협으로부터 시작한 학문의 계보를 이은 학자들로 녹문과 윤지당도 여기에 포함된다. 윤지당에 대한 높은 평가에는 같은 학파 내의 친연성이 작용한 점도 있겠지만 이들의 평가는 윤지당의 성리학에 대한 것이다. 물론 아직 읽어보지 않고 여성이 학문을 했다는 것만으로 인정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윤지당의 성리학 연구와 그 결과를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이들은 중국의 공자, 정이천, 주자가 여자의 글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채록하거나 그 견해를 인용한 점, 조선의 송시열이 이들 여성의 글을 배제하지 않고 인용한 점 등을 중요하게 거론했다. 임윤지당에 대한 높은 평가는 유한준, 홍직필, 임헌회로 이어지면서 낙론계의 한 경향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며 성리학의 새로운 전통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성리학의 전통 안에서 여성 지식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향은 조선 후

기 성리학의 변화를 보여준다. 김현은 조선 후기 여성 성리학자의 출현에 대해 조선시대의 성리학이 그 발전 과정에서 신분과 성에 대한 차별 의식을 스스로 완화시켜 가는 변화를 겪게 된 결과 과거에 성리학 세계의 비주류였던 피지배계층과 여성들도 스스로 그 세계의 주인을 자처하며 무대의 중심에 올라서려는 의지를 갖게 된 것으로 보았다.²⁷⁾ 사실 성리학에서는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모든 사람에게 성인이 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인이 될 수 있는 공부와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로 남성 선비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남성 지식인들이 자발적으로 신분과 성에 대한 차별 의식을 완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윤지당과 정일당의 예가 보여주는바 변화는 새로운 주체의 등장과 관련이 있다. 김창협(1734-1808)의 딸 김운이(1761-1824) 어린 학문적 자질을 보였으나 일찍 죽자 김창협 및 그의 친지와 문인이 김운에 대해 글을 남겼다. 그 중 김창협(1734-1808)의 문인 어유봉(1761-1824)은 김운을 애도하는 글에서 애초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어서 남자는 유의(幼儀)를 익히고 여자는 내훈(內訓)을 암송하는 것으로부터 모두 다 문자를 배웠으며, 부인으로서 경사(經史)를 다 익힌 사람이 세상에 정말 많이 있었다고 했다.²⁸⁾ 이 역시 김운이라는 사례를 통해 여성의 재능에 대한 인식으로 확대되고, 또 나아가 남녀 차별이 없었다는 발언을 하기에 이른 예를 보여 준다.

우리는 앞에서 성리학을 공부하고 실천한 여성 주체가 등장하면서 본래부터 존재한다고 믿었던 남녀 간의 차별 의식이 조금씩 완화되는 과정을 윤지당이나 정일당에 대한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의 성

27) 김현, 「성리학적 가치관의 확산과 여성」, 『민족문화연구』 4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4, 479쪽.

28) “初無男女之異。故自男習幼儀。女誦內訓。而率皆學於文字。則婦人之通習經史者。世固多有之矣。” 어유봉, <유인김씨애사병서>, 『기원집』 권28 (『한국문집총간』 184권, 394쪽).

리학자들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자신들의 관념을 수정하고, 한 뛰어난 개인 여성의 학문에서 여성의 학문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해 갔을 것으로 짐작된다.

4. 결론

이 글은 윤지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 지식인에 대한 남성 지식인의 평가가 변화해 가는 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18세기 이후 여성 지식인의 저술이나 문집 간행이 확대되었고, 이러한 경향의 이면에는 여성 문인이나 윤지당 같은 성리학자의 전례, 경화 사족들에 미친 청나라 문인들의 영향이 있었다. 이 글은 여기에 더하여 윤지당의 문집에 대한 성리학자들의 평가를 중심으로 성리학자들 내부에서 일어난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는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윤지당 개인에 대한 인정에서 뛰어난 부녀자의 학문으로 확대되면서 여성 지식인에 대해 태도가 변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성리학 전통에서 여성 지식인의 존재를 이끌어내어 여성 지식인의 계보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여성 지식인의 학문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물론 이것이 전체 여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로 나아가지는 못 했다.

윤지당은 조선시대 여성 지식인으로 당대 지식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윤지당의 학문에 대해 남성 지식인은 여성의 학문이라고 해서 물어둘 수 없다는 점, 중국에서도 이러한 예는 그냥 버려두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드러냈다. 그리고 윤지당의 학문을 녹문의 아류로 보거나 그 영향을 강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임성주나 임경주 등과 비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현대의 연구자들이 윤지당을 오랫동안 임성주의 영향력 아래 두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런데 이들은 윤지당을 여성 지식인으로 따로 분류했다. 이러한 평가는 생각할 거리를 남긴다. 당시 조선의 남성 지식인들에게 예외적인 존재였던 윤지당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 지식인들에 대한 인정과 평가와 관련

되기 때문이다. 이전에 나는 윤지당에 대한 글을 쓰면서 윤지당의 학문 세계는 당대나 후대 남성 학자들에게 예외적인 경우로 받아들여졌고, 그 학문 세계가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그들에게는 단지 ‘여성’ 학자일 뿐이었다고 평가한 적이 있다. 앞서 보았듯 남성 학자들이 여성들의 계보 속에서만 윤지당을 평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²⁹⁾ 나는 이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남성 지식인들의 글을 다시 읽으면서 이들이 여성들의 전례를 찾아서 그 안에서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결국 여성 지식인의 계보가 드러나게 된 역설을 새롭게 발견했다. 이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던 것들이 역사적인 계보를 통해 가시화되는 효과를 낳는다고 생각한다. 장강, 허목부인, 목강, 범녀, 윤지당, 정일당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는 허술하지만 여성 지식인의 존재를 계보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비주류의 계보로서 여성을 더욱 주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성 지식인의 자리를 드러내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윤지당의 학문을 높이 평가하고 여성이라고 해서 학문의 성취를 사라지게 할 수 없다고 한 사람들은 대부분 녹문이 속한 낙론계 학파의 맥을 이은 학자들이라는 점이다. 낙론계 학자들은 윤지당이나 정일당이 낙론계에 속하기 때문에 이들 학문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아마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질에 구애되지 않고 자발적 의지로 도덕의 실현이 가능하다³⁰⁾는 낙론계의 사상적 경향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이 부녀자를 향해 쓴 교훈이나 행장에는 여전히 유교적 여성 규범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김운, 윤지당이나 정일당과 같은 존재를 보면서 옛날에는 남녀가 공부를 했다거나, 여자의 글이라고 해서 묻혀둘 수 없다고 한 것은 분명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성리학을 공부하고 실천한 여성 주체가 등장함으로써 가능했던 것

29) 박무영·김경미·조혜란, 『조선의 여성들-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돌베개, 2004, 189쪽.

30) 김현, 앞의 글, 481쪽.

이고 그런 점에서 윤지당이나 정일당 등 여성 지식인들의 존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구체적인 사례들은 남성 지식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관념을 수정하고, 한 뛰어난 개인 여성의 학문에 대한 인정에서 여성의 학문에 대한 인정으로 확장해 가게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낙론계 학자들과 관련해서는 좀더 깊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 글에서는 그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그친다.

참고문헌

1. 자료

- 강정일당, 『정일당유고』 (『한국문집총간』 속 111권, 한국고전번역원 DB).
『당송팔가문초』 (전통문화연구회, 한국고전번역원 DB).
박윤원, 『근재집』 (『한국문집총간』 250권, 한국고전번역원 DB).
성해웅, 『연경재전집』 (『한국문집총간』 275권, 한국고전번역원 DB).
유한준, 『자저준본』 1권 (『한국문집총간』 249권, 한국고전번역원 DB).
이경하 역주, 『18세기 여성생활사자료집』 2, 보고서, 2010, 1-872쪽.
이규상, 『18세기 조선인물지-并世才彦錄』, 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학분과 옮김, 창작과비평사, 1997, 1-412쪽.
임성주, 『녹문집』 (『한국문집총간』 228권, 한국고전번역원 DB).
임윤지당, 『윤지당유고』 (『한국문집총간』 속 84권, 한국고전번역원 DB).
임헌희, 『고산선생문집』 (『한국문집총간』 314권, 한국고전번역원 DB).
정민정, 『심경부주』 권 3 (성백효 역주, 『심경부주』, 전통문화연구회, 한국고전번역원 DB).
한운성, 『입헌문집』 (『한국문집총간』 124권, 한국고전번역원 DB).

2. 단행본

- 박무영·김경미·조혜란, 『조선의 여성들-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돌베개, 2004, 1-349쪽.

이혜순, 『조선조 후기 여성 지성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1-414쪽.

3. 논문

김미란, 「조선 후기 여성 지식인의 출현과 저서들 연구」, 『기전어문학』 18·19·20, 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회, 2008, 45-70쪽.

김현, 「성리학적 가치관의 확산과 여성」, 『민족문화연구』 4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4, 455-488쪽.

박무영, 「여성시문집의 간행과 19세기 경화사족의 욕망」, 『고전문학연구』 33, 한국고전문학회, 2008, 369-406쪽.

이남희, 「조선 후기의 ‘女士’와 ‘女中君子’ 개념 고찰: 지식인 여성 연구를 위한 시론적 접근」, 『歷史와 實學』 47, 역사실학회, 2012, 43-65쪽.

이숙인, 「조선시대 여성 지식의 성격과 그 구성원리」, 『동양철학』 23, 한국동양철학회, 2005, 77-103쪽.

Abstract

Evaluation of Female Intellectuals by their Contemporary Male Intellectuals in Josun Dynasty : Focusing on the Case of Im Youn-ji-dang

Kim, Kyung-Mi

This essay aims to examine how Im Youn-ji-dang, a female intellectual in Josun Dynasty, was evaluated by her contemporary male intellectuals and then to follow the changes in the evaluation of female intellectuals. Im Youn-ji-dang seemed a highly remarkable person because she studied and wrote about the theory of Neo-Confucianism, a topic considered unapproachable by females.

What is more surprising is that her works were not despised but highly praised by her contemporary male intellectuals. The Neo-Confucianists, such as Park Youn-one and You Han-jun, did not consider her works simply an imitation of her brother, Im Sung-ju, one of the famous Neo-Confucianist scholars. They seriously believed her works to be worthy of preserving. These positive evaluations of the works of Im Youn-ji-dang became the meaningful grounds for esteeming the works of Kang Jung-il-dang.

The male intellectuals' high estimation of the works of Im Youn-ji-dang was based on three logical grounds. First, her works were considered precise and logical, which was a high achievement. Second, Confucian [孔子] and Zhu Xi [朱熹] also acknowledged women's thoughts and writings. Finally, the achievement of Im

Youn-ji-dang was better than the achievements of women whom Confucian and Zhu Xi had evaluated highly. The acknowledgement of Im Youn-ji-dang had a good effect on the works of Kang Jung-il-dang. It is highly significant that the case of Im Youn-ji-dang highlighted the process of maturing from the acknowledgement of a woman's excellent scholarship to the acknowledgement of women's scholarship, and this relates to Chinese female scholars, such as Mok-kang [穆姜] and Bum-nyeo [范女].

Key words : Im Youn-ji-dang, Kang Jung-il-dang, Mok-kang [穆姜], Bum-nyeo [范女], male intellectual, female intellectual

■ 본 논문은 2017년 11월 25일에 접수되어 2017년 11월 29일부터 12월 22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7년 12월 2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